

아리랑·무궁화 위성 관계자 격려오찬

감격스럽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온힘을 다 쏟고 있는데, 과학기술 중에서도 우주항공기술이야말로 과학기술의 꽃입니다. TV에서 처음 발사장면을 볼 때는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전송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답했던 속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안 나와도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아리랑 2호)는 눈이 돼서 세계 곳곳을 다 들여다보고 하나(무궁화 5호)는 귀가 되어서 남태평양 상공에서 이렇게 전부 통신을 커버하니깐, 어쩐지 지구를 정복한 것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바쁘실 텐데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폐가 되지 않나 걱정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보통 장관이 올리면 좀 재고 목에 힘도 주고 하면서 결정해 자리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미처 신청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정말 장합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대

신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이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눈부신 성과입니다. 세계 몇 위, 몇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도 감격스럽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 비행기만 더 좋은 것 만들면 끝납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위성체, 발사체를 우리 힘으로 올려 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이 그야말로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해봅시다. 계획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나올지 적자가 될지 굉장한 모험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과 정부 조직,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하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